



2017-68

「정치」

■ 중남미

트럼프의 역설 : 멕시코 정치상황의 새로운 전환

최명호 교수
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

💡 주요내용

- 2017년 1월 27일까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정치/경제적으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였음.
- 트럼프에게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한 니에토 정부에 대한 반감은 멕시코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듯 보였음.
-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성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멕시코의 니에토 대통령이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음.

1. 이슈 현황 : 트럼프 당선 이후 멕시코의 상황

▶ 2017년 1월 27일까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정치·경제적으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였음.

- ‘트럼프 장벽의 비용을 멕시코가 지불해야 한다.’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멕시코가 미국의 식민지에 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음.
- 또한 이미 이전의 칼럼¹⁾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7년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전국적인 저항 시위 상황에 들어간 멕시코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음.
- 일각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((Enrique Pena Nieto) 대통령이 탄핵 혹은 탄핵에 준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과 함께 대통령의 지지도는 11% 정도로 떨어졌음.

표 1 2013년부터 니에토 대통령의 지지율

(단위: %)

	2013.12	2014.12	2015.12	2016.12	2017.01
지지	48	58	58	73	86
반대	44	39	39	24	12

자료 : El Diario

▶ 2017년 1월 멕시코의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관적이었으며, 금방이라도 붕괴할 듯 보였음.

- 멕시코 투자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멕시코에서 생산·조립하여 미국에 수출해 왔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해왔고, 그 결과 멕시코 페소 환율은 달러당 22페소 가까이까지 올라갔음.
- 실제로 휘발유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는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번지고 있었고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도 심해지고 있었음.
 - 다시 말해 멕시코 민중들은 휘발유 가격 인상의 여파를 그저 주유할 때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체험하고 있었음.
 - 멕시코의 주식(主食)인 토르티야 가격도 따라 올랐으며 달걀, 우유, 닭고기 등 주요 식재료

1) 예의 주시해야 하는 2017년의 멕시코 경제상황, 최명호, EMERiCs

가격도 상승세임.

그림 1. 달러당 멕시코 페소 환율

(단위 : 천 명)



자료: <http://ko.tradingeconomics.com/mexico/currency>

2. 원인과 분석 : 영부인의 부패 스캔들과 트럼프 장벽

▶ 트럼프에게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한 니에토 정부에 대한 반감은 멕시코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듯 보였음.

- 영부인 앙헬리카 리베라(Angélica Rivera)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멕시코의 정치적 위기가 시작됨.
 - 니에토 대통령이 멕시코 주지사로 재직하던 2012년 700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주택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2014년 현지 언론을 통해 폭로됐음.
 - 지난해 8월에는 리베라 여사가 관급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 소유의 205만 달러짜리 미국 플로리다주 호화 아파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.
- 여기에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설치비용까지 물리겠다는 트럼프에게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한 니에토 정부에 대한 반감은 멕시코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듯 보였음.
 - 미국을 반대하고 국가주의·애국주의적 분위기가 점점 강화되고 있었고, 이를 동조하는 쪽에서는 니에토 정부의 무능을 동시에 비판하였음.
 - 휘발유 가격 인상을 비판하는 쪽에서도 니에토 정부를 비판했음.
 - 1월 12일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과달라하라, 몬테레이, 모렐리아 등 20여 개 도시에서

- 반트럼프 시위대 수만 명이 거리를 행진했음.
- 해당 시위에는 멕시코시티에서만 2만 명이 넘게 참가한 것으로 보도되었음.

- 2017년 1월 10일 멕시코 일간지 엑셀시오르(www.excelsior.com.mx, Excélsior)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니에토 대통령은 11%의 지지율을 기록함.
- 야권 지도자이자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33%의 지지율을 기록함.
- 그가 두 번의 대권에서 참패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지지율임.
- 2017년 1월 우리나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비율이 15.9%인²⁾ 것을 감안하면 니에토 정권이 임기를 다 마칠 것이라 예상하기도 쉽지 않을 상황이었음.

3. 전망과 시사점 : 트럼프 행정부의 도발에 대한 대처

▶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도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줌.

- 만일 니에토 대통령이 31일 정상회담을 했다면 상당한 금액의 장벽 건설비용을 부담했어야 했을 것임.
- 물론 나프타를 재협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은 나프타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어 현재의 조건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임.
- 또한 현재 미국 기준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과의 무역관계에 비해 멕시코의 중요성은 이민과 마약/마피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리 높지 않다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 멕시코와의 관계에 그리 집중하지 않을 근거가 됨.
- 게다가 1월 27일 이후 니에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고 (27일 기준 16%, 엑셀시오르 조사 기준), 정상회담을 취소한 니에토 행정부의 선택은 69%의 지지를 받았으며 현재 니에토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 지지도 모두 반등하여 상승하고 있음.
- 또한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휘발유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큰 구분이 없었는데 현재는 여당과 현 정부를 지지하는 반트럼프 시위대와 여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휘발유 가격 인상 반대 시위대 간의 세력 구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.
- 현 여당인 PRI는 멕시코 혁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멕시코의 국가주의의 근원이라 할 수 있음.
- 반미적 경향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멕시코에서 야권이 지지받곤 했으나 현재는 멕시코의 반트럼프 세력이 친 정권, 친 여권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, 휘발유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세력은 야권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음.

2) 한국일보, [여론조사] 10명 중 8명 “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”, 2017.01.18

- 앞으로 멕시코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현 정권과 여권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.
 - 또한 현재의 지지도를 이어가기 위해 니에토 정권은 트럼프에 강경한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- 또한 멕시코의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줌. 트럼프 대통령이 별종이라고 해도 혹은 악당의 캐릭터가 있다고 해도 월스트리트가 만들어놓은 세계 질서를 파괴할 수는 없음.
 -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성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멕시코의 니에토 대통령이 보여준 것이라고 사료됨. **EMERiCs**

출처

- 엑셀시오르Excelsior (www.excelsior.com.mx)
- Trading Economics (<http://ko.tradingeconomics.com/mexico/currency>)

💡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